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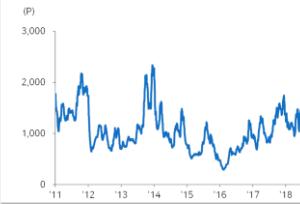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054.9	16.2	102,000	21	-11.7	-28.9	6.3	71.1	34.1	0.5	0.5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553.7	21.5	341,000	-0.3	-15.5	-20.2	-10.5	4.6	3.8	0.6	0.5	14.1	14.7
현대알렉스틱	695.0	4.3	68,100	-2.4	-30.2	-18.4	-40.3	6.5	5.6	0.6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372.8	8.6	139,000	-0.4	-21.0	-22.3	-17.8	8.8	6.5	1.0	0.9	11.7	13.9
삼성중공업	4,586.4	16.9	7,280	15	-2.0	-8.7	12.5	45.9	22.8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841.0	3.8	26,500	3.5	-1.5	-5.4	90.6	8.0	11.5	0.8	0.8	10.9	6.8
현대미포조선	1,718.0	8.9	85,900	0.9	-7.1	-14.5	9.1	18.5	13.4	0.7	0.6	3.6	4.8
한진중공업	320.8	6.2	3,025	-0.7	-11.0	-2.9	-8.6	60.9	152	0.4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319.3	22.0	85,400	-5.1	-24.1	6.8	57.0	15.1	14.7	21	18	14.6	13.3
두산밥캣	3,107.7	25.6	31,000	-0.3	-10.4	-2.1	-13.4	11.4	10.7	0.9	0.8	7.4	7.6
현대로템	2,320.5	6.9	27,300	-5.9	-25.0	72.8	45.6	35.2	24.0	1.6	1.5	4.5	6.3
하이록코리아	349.2	48.0	25,650	-1.3	-15.8	15.0	14.0	11.6	106	1.0	0.9	8.8	9.0
성광밴드	326.0	17.1	11,400	18	-13.6	-4.6	14.2	1,007.7	40.9	0.7	0.7	0.1	1.8
태광	310.1	12.9	11,700	-0.8	-12.0	-8.6	-2.9	69.9	34.1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798.2	13.3	15,350	0.0	-22.5	-5.2	0.0	18.4	100	0.5	0.5	3.6	54
두산인프라코어	1,996.2	16.2	9,590	-0.2	-15.1	-1.8	10.4	6.7	62	1.1	0.9	163	152
두산엔진	133.8	4.1	4,060	1.5	-18.1	-2.9	58.0	-5.7	-106	0.3	0.3	-3.0	-3.5
한국항공우주산업	4,132.9	13.4	42,400	0.7	-2.5	-15.9	-10.6	32.7	24.6	3.4	3.0	10.4	12.9
한화테크윈	1,233.5	12.1	23,450	-3.5	-20.1	-183	-34.0	28.1	157	0.6	0.5	1.9	3.4
LIG넥스원	916.3	8.9	41,650	-1.0	-9.9	-11.6	-30.4	18.4	125	1.4	1.3	8.5	11.3
태웅	323.1	4.6	16,150	-0.3	-15.7	-15.9	-16.5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85.4	3.7	6,870	-1.6	4.7	-17.3	36.0	-50.5	72.3	22	21	-4.3	3.1
한국기본	276.5	12.4	6,290	24	1.1	-0.6	17.4	34.3	17.8	0.9	0.8	2.5	4.7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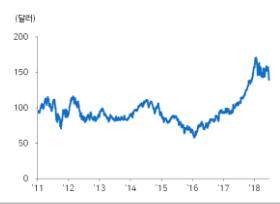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20 1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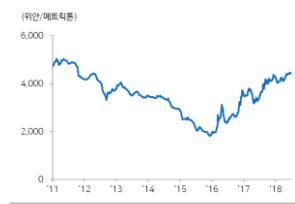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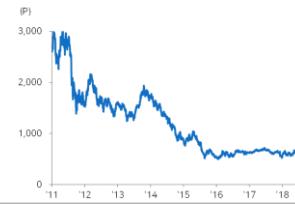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1.42 136.03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한진重, '세계 10대' 수빅조선소 필리핀에 매각 추진**

한진중공업은 계열사 수빅조선소 지분의 85% 가량을 필리핀 우덴나 코퍼레이션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이 15%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며 일정기간 경영참여를 하고, 한국 인력을 기술 고문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짐.

매각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알려짐. 한진중공업은 2016년 유동성 위기로 자율협약에 들어갔으나, 조선사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온 상황임. 수빅조선소의 채권금액은 1조 2,100억원 수준이며, 수주잔고는 145.5만GT로 1년치 일감에 못 미치는 규모로 알려짐. 채권단은 결국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2월부터 투자자를 물색했고 필리핀 우덴나 코퍼레이션과 접촉에 성공했다고 알려짐. (아이뉴스24)

현대오일뱅크, 상장 속도내려 자회사 회계방식 수정

현대오일뱅크는 연내 상장을 위해 자회사 현대헬비이스오일을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분류함. 이는 회계처리 방식을 바꿨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교훈으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의도로 알려짐. 현대오일뱅크는 재무제표 작성 후 다음달 초 상장예비심사 청구, 11월 상장이 전망됨. (서울경제)

Shanghai Shipyard stays away from loss-making deals despite thin orderbook

중국 CSSC 산하 Shanghai 조선소는 수주잔고가 9척으로 감소했음에도, 순실을 감수한 수주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짐. 해당 조선소는 작년 6월 별크선 수주를 마지막으로 수주가 없음. 일부 관계자는 수주잔고가 없으면 폐쇄될 가능성과, 환경문제로 Changxing Island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Nissen adds to feeder boxship spree at HMD

일본 Nissen Kaiun은 현대미포조선에 1,8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추가로 발주해 총 8척으로 주문이 늘어났다고 알려짐. 선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척당 2천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해당 선박은 고려해운에 10년간 용선될 계획이며, 일당 1.2만달러 수준의 용선료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짐. (TradeWinds)

Greek owner's Empire Navigation poised to sign first tanker order

그리스 Empire Navigation은 현대미포조선에 4+4척의 MR탱커를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짐. 총 발주금액은 2.8억달러이며, 인도는 2020년으로 예상됨. 해당 선박은 투기적 발주가 아니며, 미국 Cargill에 용선될 전망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발주되지 않았지만, 발주될 가능성성이 높다고 알려짐. (TradeWinds)

John Fredriksen's Frontline goes scrubber shopping

선대왕 John Fredriksen이 소유한 Frontline은 선대 개조를 위한 주요 계약의 일환으로 스크러버 제조사 Fearn Marine Scrubbers의 지분 20%를 취득함. 또한 Frontline은 14척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계획이며, 22척 이상의 선박에 고정된 가격으로 장착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KAI, 필리핀에 수리온 수출… 김조원 "2500억 규모 수출 계약 막바지"

한국항공우주 관계자는 정책도论회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필리핀에 수리온 11대를 수출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힘. 계약규모는 2,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짐. 이달 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 후 수리온 구매 검토가 진행됐다고 알려짐. 이번 납품으로 수리온의 동남아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임. (헤럴드경제)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6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은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6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